

6년간 2천여권 읽은 광양제철남초교 김서현 양의 독서 노하우

“책 읽다 느낀 점 꼬박꼬박 적어요”

13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이 6년간 2천여권의 책을 읽어 화제다. 광양제철남초등학교 6학년 김서현(사진) 양은 최근 교내 독서왕으로 뽑혀 포스코교육재단으로부터 상을 받았다. 6년 동안 2천권이 넘는 330권, 거의 하루 한 권 꼴이다. 한 달에 한 권 읽기도 힘든 ‘어른들의 현실’에 비춰보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.

김 양의 독서는 양이 많다고 해서 결코 가볍지 않다. 읽고 느낀 점은 꼬박꼬박 노트에 적었으며, 싫어하는 분야를 두고 ‘편식’하지도 않았다. 교내 백일장은 물론, 각종 글짓기 대회 수상 성적이 그 증거다. 김 양은 소년조선일보 문예상 동시 부문에서, 전라남도 독서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했다. 김 양이 이처럼 양질의 독서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.

학교와 가정에서 끊임없는 관심을 보였고, 김 양 본인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. 김 양의 독서 노트에는 매 장마다 A4용지 서너장 분량의 독후감이 붙어 있다. 지난 3월부터 쓰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털거린다. 김 양만의 노하우가 묻은 독서노트를 잠시 훑쳐 보자.

◇가정에서=김 양의 어머니 유정자(40)씨는 “서현이가 책을 많이 읽게 하려고 특별히 한 것은 없다”고 했지만 분명히 ‘뭔가’ 있었다. 유씨는 6년 전부터 김 양을 위해 인터넷 책 대여 사이트에서 매주 4권 가량의 책을 배달시키고 있었다.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4권이지만 시간이 많은 방학 때는 매주 12권은 기본이다. 유씨는 김 양이 어렸을 때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 주는, 보통 엄마들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을 뿐이라고 한다. 김 양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그저 ‘글자’를 조금 좋아하는 정도였다. 김 양의 독서에 가속도가 붙은 것은 학교 입학한 후였다고 유씨는 말했다.

“책 읽이라 강요한 적 없어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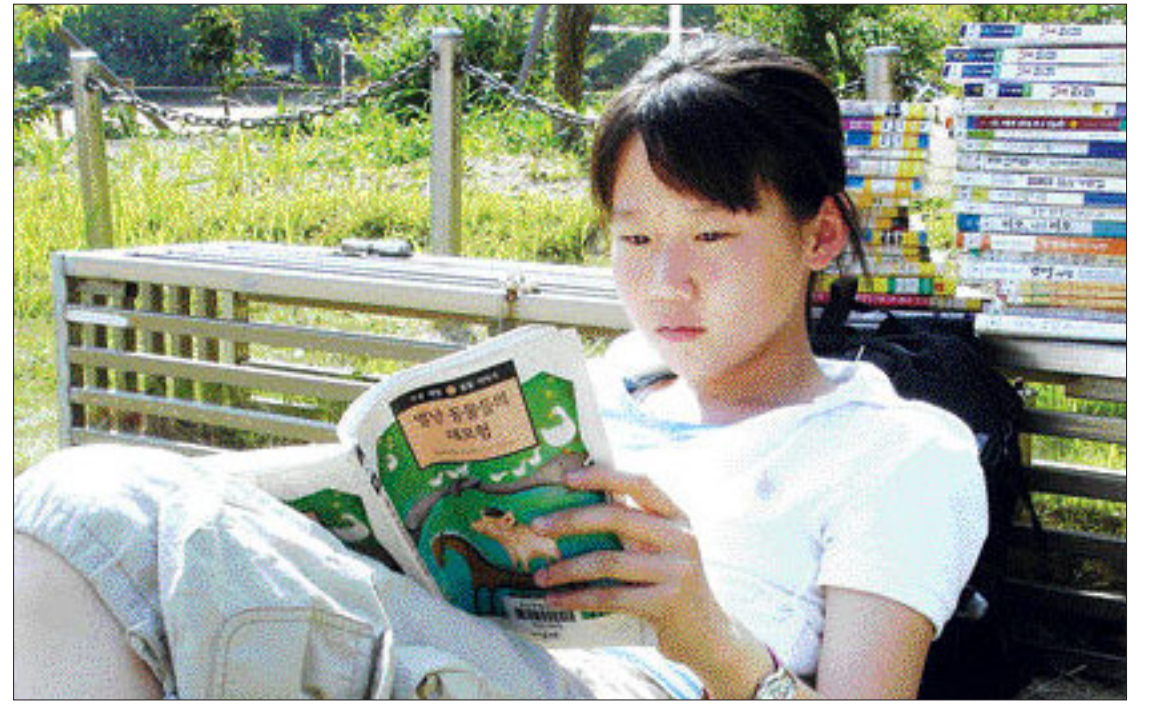
그렇다고 치더라도 유씨의 ‘뭔가’는 은근했다. 매주 배달돼오는 책들에 김 양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책을 집 안 곳곳에 배치시켜 놓은 것. 거실 소파는 물론 아이방 침대 곁, 장난감 상자 옆 등 책들은 집 안 ‘이무데나’ 있었다. 유씨는 “서현이에게 책 읽으라고 강요한

매주 인터넷서 책 대여 일주일 평균 4권은 기본 각종 글짓기 대회 입상 교내 독서왕으로 뽑혀

적도 없다”고 말했다.

김 양이 독서왕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유씨의 노력 덕분이다. 초등학교 입학한 뒤 지금까지 김 양이 읽은 책들의 목록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었던 것. 그래서 김 양의 ‘2천권’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. 독후감을 써 놓은 독서노트로 10권이 넘는다.

◇학교에서=김 양이 다니는 광양제철남초등학교를 성실하게 졸업한 학생이라면 6년간 최소 300권의 책을 읽게 된다. 이는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모든 학교에서 학년 당 50권의 필독서를 학생들에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. 강제는 없지만 필독서를 다 읽지 않으면 ‘독서수료증’을 받을 수 없다. 김 양은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추천하는 필독서 50권을 다 읽기 위해 1학기를 넘겨본 적이 없다. 누구보



다 빨리 50권이라는 ‘방어전’을 치른 뒤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찾아 나서기 때문이다. 학교 측이 독서활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독서가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된다는 ‘진리’를 실현하기 위한 것.

“마음의 나무 키워주는 거죠”

김 양의 담임 교사인 김부림씨는 “우리 학교만의 독특한 독서 프로그램이 수년째 운영되고 있다”며 “필독서 선정 외에도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마음가꾸기 체조, 안구 훈련, 독서 기록장 작성, 글 분석 또는 끊어서 읽기 방법, 작가와 대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독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◇나만의 독서=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무리 독서를 강조해도 ‘제가 싫으면 그만’이다. 김 양은 최소한 하루에 2시간은 책을 읽는데 투자한다. 남들 다 다니는 과

와 학원도 일주일에 두 번 수학이 전부다.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즐겨왔던 김 양은 학교에서 배운 독서 방법을 집에서도 적용하고 있었다.

예를 들어 김 양의 특유한 강제는 의한 것이 전혀 아니다.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생각나면 그때 그때 적어두고, 좋은 문장도 같은 방식으로 머리 속에 담아 둔다. 이렇게 김 양이 남겨 놓은 짧은 글들은 독후감을 쓸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.

또 김 양은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를 정해놓지 않고 읽는다. 김 양은 다독의 효과로 “아는 것이 많지 않고 논리적이 돼가는 것 같다”고 했다. 김 양은 최근 4~6학년용 대상을 열린 교내 토론대회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. ‘자신에게 책은 무엇이냐’는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던 김 양은 “마음의 나무를 키워주는 거죠”라고 헌답(賢答)을 내놓았다.

/글·사진=정성필기자 camus@kwangju.co.kr

Table with multiple columns: 사건번호, 물건번호, 소재지 및 면적, 용도, 감정평가액, and 비고. It lists various real estate properties for sale, including apartments, houses, and commercial buildings,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details.